

가족에게 어떻게 돌아오나요?



인수
안장

[인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01

연구가 종료되면
예의를 갖추어 입관하고 화장합니다.

3-4년 후
가져다가 뿌려
다시 장례를

02

화장이 완료되면
유골을 유가족에게 돌려드립니다.

유골을 모시기 어려운 경우, 참사랑묘역에 안장(최대20년)

03

참사랑묘역 안장기간이 종료되면
유골은 유가족이 모시고 가져야합니다.

유골은 묘역안장 중에도 언제든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관, 화장 및 유골안장 시
유가족은 초청하지 않습니다.





01 시신기증을 상담해주세요.

- 전화상담 후에 동의서를 발송해드립니다.
(기증시신 상담 : 02-2258-7135)

02 시신기증동의서를 작성해주세요.

- 반드시 본인과 가족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 **서명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03 동의서와 아래의 서류를 함께 접수해주세요.

-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과 가족간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04 시신기증등록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 등록증은 서류심사 후 2-4주 내에 발급됩니다.
-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도 언제든지 취소 가능합니다.



[시신기증 등록하신 분이 사망하신 경우]



0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를
병원이나 경찰을 통해
발급해주세요.



02

등록증 후면의 전화번호로
등록자 사망을 알려주세요.



03

장례계획을 잡으신 후
연락주세요.



04

상담 후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시신기증이란

시신기증은 돌아가신 후 아무런 조건없이 의학발전을 위해서 의과대학에 해부 및 연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기증하는 일입니다. 돌아가신 고인이 전염성이 없는 질병이나 암, 그리고 자연사인 경우 기증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시신기증은 본인과 가족의 뜻이 일치하여야 하며, 신청서 작성시 가족의 자필이 필요합니다. 또한 등록자가 사망한 경우 타인이 아닌 유가족들이 사망사실을 통보하여야만 기증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병원에서 사망시 '사망진단서'를 유가족이 준비하여야 하며, 자택에서 사망시 가까운 병원 응급실 또는 의원에서 '사체검안서'를 발급받아야만 우리대학에서 인수할 수 있습니다. 시신기증은 강제성이 없으며, 자발적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등록하신 경우에도 취소하고자 하실 때는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투철한 사명감을 지닌 의료인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연구-봉사의 정신으로 정진해 온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살피 주는 역량있는 의료인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5,000 여 병상의 8개 부속병원에서의 임상실습과 현장교육으로 의학이론과 의술을 겸비한 '좋은의사'를 배출해 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은 앞으로도 더욱 훌륭한 의사들을 양성, 배출함으로써 환자의 치유에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십시오.

아무 조건없이 자신의 시신을 맡기는 '시신기증'은 의술로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자 하는 의대생과 임상교수들에게 산교육의 기회와 의술의 발전을 주는 참사랑의 실천행위입니다. 우리의 의학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질병없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도움을 주어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저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 시신을 기증, 접수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그 고귀한 뜻이 빛을 발하도록 더욱 밝은 의술을 펼쳐 사회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시신기증 연락처

1.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총무팀

- 전화: 02-2258-7135
- 팩스: 02-532-6537
- 시간: 08:00 - 17:00
- ※ 야간 및 공휴일 : 02-3147-8100

2. 가톨릭응용해부연구소

- 주소: (06591)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 이메일 : cadaver@catholic.ac.kr

3.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참사랑묘역

- 주소: 449-852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오산리 산 31 번지 천주교 서울대교구 용인공원묘역 내
- 전화: 031-334-0807, 1267

.

경기 용인천주교공원묘지 내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시신기증자들을 위한 납골당 '참사랑묘역' 전경. / 사진 = 안재용 기자

"여기에 안치된 분들은 진정한 성인(聖人)입니다."

경기도 성남 분당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용인 천주교 공원묘지. 묘지 안쪽으로 5분쯤 걸어 들어가 '참사랑묘역' 앞에 다다르자 안병주(프란치스코) 관리소장이 기자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내뱉은 한마디다.

공원묘지에서도 중심에 마련된 참사랑묘역은 천주교인 중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 연구목적으로 써달라며 '시신기증'한 2700위가 안치돼 있는 납골당이다.

참사랑묘역은 한눈에 보기에도 차분하고 안정적이었다. 납골당 하나마다 사연을 담은 사진이나 헌화가 놓여있었다. 종교적 이유가 아니더라도 시신을 기증한 이들의 희생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의 마음이 묻어났다.

납골당 앞에는 너른 공터가 눈에 띄었다. 매년 11월 1일에는 가톨릭 의대와 성모병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해 기증된 시신의 뉘을 기리기 위한 위령대미사가 열리는 곳이다. 장례비용과 사후 납골당 등은 모두 가톨릭대학에서 제공한다.

안 소장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을 위한 선택을 하신 분들을 위한 곳"이라며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지만 시신 기증이라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하며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